

손흥민 마침내 '우승 한풀이' 프로데뷔 15년만의 첫 정상

토트넘, 맨유 1-0 꺾고 UEFA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후반 22분 교체 출전... 생애 첫 프로 정상
시상식서 주장으로 가운데서 우승컵 들어 올려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마침내 '무관의 한'을 풀고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처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22일(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잉글랜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반 42분 브레넨 존슨이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트렸다.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에서 벗어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을 획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손흥민도 지긋지긋했던 무관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해 레버쿠젠(이상 독일)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번 UEL 우승 전까지 프로에서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16~2017시즌에는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첼시에 밀려 정규리그 2위에 그쳤다.

2018~2019시즌엔 UCL 결승전에 올랐으나, 리버풀(잉글랜드)에 무릎을 꿇어 우

승컵을 놓쳤다.

2020~2021시즌은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저 준우승을 차지했다.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트로피에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야 했다.

특히 선수로서 커리어 전성기에 맞이했던 두 번의 컵 대회 결승전 패배는 손흥민에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와일드카드'로 나선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한 우승 경력이었다.

1992년생으로 선수로서 황혼기에 가까워진 손흥민에게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은 그래서 더 간절했다.

이번에도 놓쳤다면, 언제 다시 우승의 기회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무관을 함께했던 '단짝' 해리 케인이 2024~2025시즌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견인하며 기나긴 무관 악몽을 끝냈던 터라 손흥민의 UEL 우승은 마지막 퍼즐과도 같았다.

물론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정상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올 시즌 '에이징커브(노쇠화에 따른 기량 저하)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생애 첫 정상

/뉴스1

를 의심하는 눈길 속에 후반기에 부상까지 발목을 잡았다.

또 토트넘의 EPL 부진이 길어진 가운데 발 부상도 한동안 전열에서 이탈해 UEL에서도 동료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겨우 부상에서 탈출해 복귀했지만, 현지에서 손흥민의 결승전 출전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갈 정도로 여론은 악화한 상태였다.

실상가상 UEL 결승을 앞두고 국내에선

'사생활 이슈'까지 터져 손흥민을 더 세계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우승을 향한 손흥민의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했다.

이 대회 결승을 앞두고 각종 논란에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은 UEL 우승이란 값진 결실을 수확했다.

최근 발 부상에서 돌아와 정상 컨디션이 아닌 탓에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교체로 출전해 우승에 이바지했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부상을 입은 히사리송 대신 투입됐다.

토트넘이 존슨의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 수비에 집중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헌신적인 플레이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손흥민은 생애 첫 우승이 확정된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대로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포효했다.

또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이날 부상을

로 뛰지 못한 제임스 매디슨, 데얀 콜루멘스키 등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에서 가장 늦게 알렉산드르 체페린 UEFA 회장으로부터 우승컵을 받은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단 중앙에서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한국 선수 중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든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뉴스1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웬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리안간 적용, 세대 전용 창안식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영암군민속씨름단, 월출산서 씨름판 평정 의지 다져

하늘아래 첫 부처길 등반, 팀워크 다지고 군민 성원 보답 다짐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 17일 월출산 하늘아래 첫 부처길을 등반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다가오는 대회 평정의 의지를 다졌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공직자와 함께한 이날 등반은, 영암읍 대동제주차장에서 출발해 용암사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완만한 오르막길을 약복 4시간 오르내리는 여정이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원들은 하늘아래 첫 부처인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심신을 재정비하고, 단원간 화합을 다졌다.

동시에 지역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암이 좋아요' '영암군민속씨름단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영암군민의 응원을 받았다.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은 "몸도 마음도 승리의 의지도 다지는 시

에 좋은 성적으로 화답할 것을 다짐했다.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은 "몸도 마음도 승리의 의지도 다지는 시

간이었다. 월출산의 정기를 바탕으로 한결같이 성원해 주는 영암군민과 팬들에게 보답하는 경기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25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서킷버스터-카트체험-미니카레이싱 등 즐길거리 다채

아시아권 문화교류와 국내 모터스포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종합 문화축제인 '2025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2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전라남도도가 후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아시아권 문화교류와 국내 모터스포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종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경주, 전시,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는다. 총 7개 종목 120여 대의 레이싱카와 바이크가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참가종목은 국내 최상위 클래스인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GT(고성능 양산차) ▲프리우스 PHEV(일본 하이브리드) ▲LiSTA M(BMW) ▲알핀(프랑스 스포츠카) ▲래디컬 컵 아시아(영국 레이싱 전용차) ▲코리아 슈퍼바이크(일본 모터

사이클) 등이다.

특히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는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 경기로, 2022년부터 도입된 피트스톱(Pit Stop) 방식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레이싱팀의 급유와 타이어 교체 장면이 현장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경기 외에도 국내외 모터스포츠 브랜드 전시, 푸드트럭 운영,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대표 체험으로 선수와 차량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리드워크', 프로 드라이버와 서킷을 도는 '택시타임', 서킷 버스터, 카트 체험, 미니카 레이싱,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연계형 축제로 기획됐다. 예선전을 포함한 대회 기간 약 3천320여 선수 및 관계자 등이 지역에 체류하고, 25일 결승 당일엔 2

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암, 목포 등 지역의 숙박, 외식업 매출 증가, 관광지 수요 확산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회를 통해 전남의 청정 이미지와 미래형 모빌리티 중심지로서의 가능성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경기 생중계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도의 브랜드(BI)와 홍보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